

추석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18)

찬 송 325장(통359장)「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같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시면” 인도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 189면)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함께
가족 모두 남은 한 해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540장(통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같이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뻐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4.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쁨으로찬양 456장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후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마 무 리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올 초에 설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전적 의탁한다는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한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남은 한해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목도하고 있는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말세의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 깊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전능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기술만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단절된 채 기술만 발전시키고 SNS를 통해 사람들과만 소통하다보니 정작 영혼 깊은 곳은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말세의 때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한결같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충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어른들은 꿈을 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을 품게 될 때 다음의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사명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성령충만하여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개척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개척자 의식이란 비록 내가 부족할 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바로 이 개척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편안함에 안주하며 검증된 길만 가라고 요구하지만 개척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새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새날을 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세상의 영적 어두움이 심해질수록 성령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한아름 가득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자 의식과 개척자 의식으로 무장되어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